

치매 조기진단 원탁회의 결과문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진단이 가능한가?』

I. 본회의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축적된 아밀로이드반(amyloid plaque), 타우 단백질(tau protein)과 같은 유해한 단백질의 침착으로 인한 뇌세포 손상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은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저하, 언어장애 등 여러 인지기능 이상과 성격변화, 우울 증상을 보이며 결국 모든 일상생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촬영법에는 MRI, CT와 같은 구조적 영상촬영법과 FDG-PET, 기능적 MRI(fMRI), 동맥 스핀 라벨링(arterial spin labeling, ASL)과 같은 기능적 영상촬영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회의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FDG-PET의 유용성이 논의되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병리 기전에 근거하여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실제 임상현장에서 진단을 내리기 애매한 경우, 특히 기억장애성 MCI의 경우 FDG-PET 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치매의 자연사와 병리, 조기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FDG-PET을 통한 진단이 임상적 유용성으로 연결되기 힘들고 조기 진단검사와 관련해 검사주기, 추후관리 방법(예컨대 정량검사가 가능하다면 그 결과에 따른 차별적인 관리방법이 있는가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특히 FDG-PET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는 과잉진단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증상 환자에게 알츠하이머 치매를 조기 진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원탁회의는 임상전문가 및 정책결정자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진단 가능성 및 유용성, 보험적용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모든 환자 또는 일부 치매환자들에게 특정 영상검사를 바로 시행하거나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만큼 타당한 근거는 없지만 치료적 의미가 있는 특정 적응증의 경우와 치료법 개발에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로 논의된 FDG-PET는 고가의 검사이므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선별검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조기 검사방법들에 대한 연구개발도 필요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전문가 외에도 인지과학자나 뇌과학자와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I. 후속조치

NECA 원탁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토의된 내용은 추후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에 있다. 또한 치매 진단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FDG-PET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자 ‘치매 진단 검사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